

중남미 선교 포럼

미태복음 28:16-20

홍관표 목사님

중남미는 한국에서는 거리도 멀고, 모든 것이 반대다. 시간도 밤낮도 계절도 반대다. 그런데 이 귀한 현장을 섬기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포럼을 귀한 참사랑교회에서 축하의 자리와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오늘 전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면 좋겠다. 먼저 참사랑교회 설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싶다. 이 배를 띄워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중남미 선교의 시작과 언약

중남미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원래는 중국 사역을 하고 있었고,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나이지리아 제자 한 사람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선교총국에서 10개 권역을 나누더니, 내 키가 표준이어서 비행기 타기 편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중남미 선교의 실무를 맡아 달라는 것이다. 1주일 정도 기도하게 해 달라고 했다. 99%는 순종이고, 1%는 이것을 담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이고, 하나님은 신분 권세를 통해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가서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시작인데, 시간을 때울 게 없었다. 그래서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비행기 표만 끊어서 갔다. 그때부터 언약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한으로 생기면서, 10년 정도 지났더니 평생의 언약이 되었다.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천세호 목사님, 신봉준 목사님이 다 팀이 되어서 하나되어 움직이고 있다. 노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는 총회, 노회의 배경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선교는 이것을 벗어난 파라 조직에서 되어야 한다. 노회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임원 바뀔 때마다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주고, 질서 측면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며, 실제 움직이는 것은 파라 조직의 선교회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중남미 선교를 함께 하는 교회가 일곱 군데 정도 된다. 다른 지역 교회도 같이 하자고 해 봤는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선뜻 들어오는 분들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우리대로 팀을 짜서 움직이고 있다.

- (1) 우리가 미약하지만, 시도행전 1:8의 언약을 확인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나 언약만 잡으면 된다는 것이다.
- (2) 그래서 이사야 60:1-22의 언약을 마음에 담았다. 이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참사랑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축복을 받아야 하겠는데, 큰 배를 이미 만들었다. 언약 따라서 배를 띄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2. 중남미 현장 소개

중남미 사역을 하려면 일단 시간이 많아야 한다. 날아가는 시간만 해도 20여 시간이 걸린다. 수속 밟고 갈아타고 하면 8시간, 12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도착할 때까지 이틀이 걸리고, 거기에서 다시 스물 몇 시간 버스를 타야 도착한다. 칠레 같은 곳이 그렇다. 그래서 시간과 건강이 필요하다. 65세가 되어도, 그 이상이 되어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65세는 전부 중남미 가라, 힘 될 때까지 가고, 힘 떨어지면 거기에서 죽어라, 어차피 어디에서 죽어도 똑같지 않느냐' 한다. 또 경제 축복이 필요하다. 경제가 없으면 비행기 표를 못 살 텐데, 아직까지 표를 못 사서 못 간 적은 없다. 하나님이 선교하니까 경제를 축복하신다. 중남미 선교에, 대학사역과 교사선교국까지 일하고 있는데, 교회를 거의 비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신다. 우리끼리 재미있게 누리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회 목표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주셔서, 나는 외부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달라졌다. 세계 2만 대학, 제자 세우고 세계복음화, 그런 기도만 하시는 것이다. 원래 여기도 지난주에 왔어야 했는데, 그 전날에 바로 한국 들어왔다. 한 번 들어가면 3주 정도 들고 오니까 교회도 돌아봐야 하고, 몸도 추슬러야 해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했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온다.

- (1)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유적이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 보시기 바란다. 이게 중남미의 대표적인 그림이다. 원래 인디오 문화권인데, 아즈텍, 마야, 잉카 같은 문명이었다. 여기에 포루투갈과 스페인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금의 문화권이 되어 있다. 리우 데 자네이루 보면 예수상 있지 않나. 이렇게 합쳐진 것이다. 이게 중남미 문화다.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칠레, 아르

헨티나까지 문화가 거의 비슷하다. 아르헨티나는 약간 유럽 풍이 더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흘러가는 것이 다 비슷하다. 정확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할 현장인데, 인디오와 천주교가 합쳐진 문화다.

(2) 이곳을 영어로는 리틴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우리는 남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중남미라고 한다. 37개 나라들이 약간 규모있는 나라들이고, 그 외에 13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나라가 37개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들에는 구석구석 예수상이 세워져 있고, 키토에는 산꼭대기에 마리아상이 크게 세워져 있다. 쇠시슬을 들고 뺨을 밟고 있다. 마리아가 구세주 역할을 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중남미 사람들은 기독교인자든 천주교인자든 마리아 하면 어머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리아 원죄설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한다. 우리는 괜찮았는데, 박건원 선교사님은 맞아죽을 뻔 했다. 마리아는 깨끗하지만 자기들은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무릎으로 4km씩 걸어다닌다. 죄 씻는다고 불교처럼 엽을 씻어야 한다고 한다. 종교성이 강하다.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에 잡혀 있다. 자기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상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니 영적 문제는 개인 과고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다. 이런 나라들이 중미에 8개, 남미에 12개, 카리브해에 28개, 총 50개가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그림이 아즈텍 문명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신전이다. 옛날부터 그 앞에서 축구를 했는데, 이기면 스스로 제물이 된다고 한다. 그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과달루페에 있는 성모마리아 상을 보면, 흑인여자로 만들어 놓았다. 교황이 와서 '너를 마리아로 임명한다' 해서 마리아가 되었다. 원래 토속 흑인 여신이다. 그런 문화들이 많다. 예수도 흑인, 마리아도 흑인,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많이 깔려 있다. 해방신학의 뿌리 때문이다. 마야 문명이다.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 마야, 아즈텍 문명이 비슷비슷한데 많이 섞여 있다. 여기도 태양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다. 제단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코스타리카 카르타고의 성당 앞에 1년에 250만 명이 모인다. 성당에 효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곳이 너무 많다. 어떤 성당에 가보면 귀 모양이 가득하다. 어디에는 발 모양, 어디에는 비행기나 집 모양을 붙여놓았다. 수십, 수백 개가 된다. 사고 나서 다리를 다치면 그 부분을 와서 고쳐 달라고 다리를 사가지고 가서 걸어놓고, 귀 문제가 오면 귀를 고쳐달라고 걸어놓는다는 것이다. 그 주신이 인디오 여자 상인데, 이 상을 다른 데 버리면 다시 어떻게 왔는지 돌아와서 그 자리에 있고, 버리면 돌아오고 그런다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우물 마시면 효험이 있다고 해서 마신다.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 잉카 문명을 보면, 돌을 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다. 제단,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곳에도 역시 항상 중심에 있는 것이 성당이다. 기독교인들도 거의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복음이 전혀 증거가 되지 않았다.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복음 정리, 복음 목장을 안 하고 주위들은 것으로 거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의 가톨릭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다. 뭐라 카더라, 좋더라, 효험 있더라 하면 가 보자 해서 가톨릭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다시 성당으로 왔다갔다 한다. 여기 목회자들도 거의 신학을 안 했다. 80, 90%가 신학을 하지 않았다. 조금 은혜받으면 목사 안수를 해 버린다고 한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전부 목사인데 교회가 없고, 교인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 세우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십일조 걷는다고 하는 식이다. 말씀 중심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 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무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 르호보암은 무능하고 예로보암은 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중남미의 구조다. 예수, 하나님, 성경, 십자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참사랑교회 기도의 응답들이 그곳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

3. 중남미 지역의 시작

- (1) 2007년부터 순회하기 시작했다. 1년에 2, 3번 정도 순회를 하고, 조직이 없을 때는 제자 찾고 팀 사역을 하고, 다음에 가서 제자들이 모이면 사역자 훈련을 해서 확산시키고 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다. 복음부터 전하면서 응답을 받는다. 대부분 교회는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한 복음만 전함으로써, 우상시대가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 (2) 중남미를 꼭 순회하면서, 파나마부터 집중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파나마에 중남미 센터를 세우도록 기도제목을 가지고 갔다. 파나마는 무역, 경제, 금융에 있어서 중남미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지금은 홍콩 비슷하게, 바닷가에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다. 많이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처음 갔을 때는 정글 현장부터 시작했었다. 박건원 선교사님이 사역을 애초에 정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다락방 운동을 소개했다. 처음 목사님들을 만나 보니까 다 힘

이 빠져 있었다. 파나마는 안 된다, 신학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박건원 목사님이 북쪽 산악 쪽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요즘은 양철지붕, 슬라브 지붕이 정글에도 들어서 있지만, 처음 갔을 때는 전기도 없는 초가집들이었다. 전기가 처음 들어온 곳이 교회였다. 교회에서부터 문화가 변화되었다. 이런 동네는 주술사가 마을 이장과 함께 마을을 운영한다. 이장이 되기 전에 무속인과 한 달 합숙하면서 귀신 총만해져서 시작한다. 1년에 몇 차례씩 주술을 중심으로 마을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인도 무조건 참석해야 한다. 쓴 담배를 피우고 사람이 몽롱해져야 한다.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서 살아남고 복음운동을 하면서 다른 정글 마을까지 살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그곳을 장인성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장을 영접시키고 그랬다. 2, 3년이 지나서 사역자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2박 3일, 3박 4일씩 집중으로 하기 시작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메시지를 시키니까, 열 몇 시간을 강의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도망가서 쉬고 있는데, 또 잡혀가서 메시지를 또 하고 그랬다. 지금은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메시지를 하니까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세워진 졸업생이 십여 명 교수가 되었고, 재학생이 70여 명이 생겼으며, 파나마 집회까지 열리게 되었다. 여기가 중심점이 되고 중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끊을 때 파나마 왕복부터 끊고, 거기에서부터 중남미 순회를 다닌다.

(3) 파나마에서 제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만 집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은 것이 40일 훈련이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가도 1년에 2, 3번밖에 못 간다. 이렇게 해서는 복음운동이 정확히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박건원 선교사님과 이야기해서, 한 사람씩 먼저 한국에 불러서 40일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파나마의 알렉스 목사를 처음 불러서 훈련하기 시작했다. 처음 왔는데 이분이 긴가민가 하는 것이다. 40일 집중을 했는데 돌아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또 불렀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다. 교회에서 한두 명 제자가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 목회를 하는 동료들, 신학교 교수들이 연결되는데 제자들이 불기 시작했다. 이분 중심으로 신학교 교수들이 다 다락방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 복음운동 응답의 중요한 부분이 집중훈련이다. 여러분이 인생에 집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중남미에서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실 이분은 지금도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런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라우렌시오 목사님이라는 진짜 제자가 세워졌다. 자기 친척들까지 다 자비량으로 한국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다. 이 복음이 중남미와 세계를 살리는 복음이라고 결단하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한 것이다. 자기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훈련을 받도록 만들었다. 이분이 들어가서 램넌트 현장, 청년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기 시작했다. 본부의 흐름 따라서 합숙, 신학원,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저런 것을 적용하는데, 이제는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 2012년에 신학교 교수 중심으로 7명이 시작했다. 우리는 한 번 오면 평생 와야 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중심이다. 그래서 한 번 오면 다음에는 다른 제자를 데리고 또 같이 온다. 그래서 2012년에 7명으로 시작한 것이, 2013년 11명, 2014년 17명, 2015년 26명, 2016년 60명을 넘어서, 작년 6회 때에는 85명이 오게 되었다. 85명이 선교대회 때 40일 동안 와서 훈련을 받는 것이다. 제자가 일어나고 선교운동도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에도 응답이 오고, 땅도 사고 교회도 얻고 하게 되었다. 선교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다. 대구의 음악 전문인, 약사 의사 전문인들이 와서 포럼도 하고 이들을 살피 주기도 했다. 40일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게 자는 것과 먹는 것이었다. 먹는 게 문제다. 처음에는 사졌는데 끝이 없다. 20여 명까지는 성도들이 대접도 했다. 50명 넘어가니까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팀을 짜서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밥 하는 게 선교다. 그 선교도 이제 하나교회로 보낼까 싶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또 선교해서 밥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정성인지, 내가 심방갈 때도 이렇게 안 차려주던데 맛있게 차려 주더라.

4. 중남미 사역의 확산

(1) 다른 나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쿠바 등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이다. 코스타리카에서 24명이 했는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응답은 숫자가 아니다. 얼마나 말씀운동하는 제자가 일어나느냐다. 현장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말씀운동 일으키는 제자다. 그래서 그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선별한다. 중남미 가면 돈 얼마쯤 가지고 왔느냐 묻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왔다 하면 이상하게 본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충격을 받으니까, 다음에는 돈 필요없다, 복음만 달라 하면서 모인다. 우리도 자비량으로 가고, 이 사람들도 자비량으로

모이고 움직이고 선교하러 간다. 중남미 선교는 돈도 시간도 필요하다. 말로는 세계 복음화 위해서 헌신한다 하지만 회비 받아보면 알고, 시간 쓰는 것 보면 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20시간 넘게 버스 타고 들어가서 대학도 들어가고, 제자도 찾고, 말씀운동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 이런 사역은 우리 교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교회와 연합해서 하고 있다. 갈 때도 세 명, 네 명이 팀이 되어서 간다. 혼자 가면 지친다. 서너 명이 팀이 되어서 가면 참 재미있다. 정윤돈 목사님이 2008년에 같이 가셨었는데 그 후로는 힘드셔서 그런지 안 가시는데. (웃음) 보내주시기 바란다. 칠레는 애로사항이 있다. 나라가 너무 길어서, 남북으로 나누어서 해야 한다. 남쪽 끝, 북쪽 끝에서 따로 사역을 해야 하나까 경비는 많이 들고 제자는 안 일어난다. 그래서 수도 산티아고에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 온두라스 사역이다. 1년 전에 팀 사역을 하러 가서 다락방 운동을 소개했다. 이렇게 해서 집회를 모였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제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운동이 확산되고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페루 리마에는 홀리오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었다. 마약치유센터가 세워지고 의료 선교도 했었는데, 홀리오 목사님이 경제에 문제가 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버려진 현장이 많다. 여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몇 주 전에 제2회 훈련집회를 하고 다락방으로 파고들고 있다.

(2) 이렇게 해서 연결된 사람 중에 차세대 중남미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대학 때 세운 제자가 이신남 목사다. 그리고 에밀리오 페르노 목사는 브라질 제자인데, 대만 선교사로 갔다가 다락방을 만나고 한국 와서 훈련을 받았다. 이분을 통해서 브라질 뿐 아니라 온두라스까지 문이 열렸다. 영상으로 다락방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멕시코의 우발도, 칠레의 페르난도 같은 램넌트들도 지도자로 세워지고 있다. RTS에 중남미 제자들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이 통역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파나마에서 아예 생활비를 줘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5. 중남미 사역을 위한 기도제목

중남미 기도제목이 있다.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보다 앞으로 응답받을 것이 큰데, 시간표 따라서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 (1) 그래서 11월 둘째주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중남미 전역의 제자들이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전도학교를 하려고 한다.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목회자들이 지역, 나라에서 전도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 (2) 중요한 것이 목회자다. 그래서 신학교와 RUTC를 확산시키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목회자 재훈련, 영적 지도자 양성, 중직자 훈련, 램넌트 조직과 사역이 필요하다.
- (3) 각 나라별로 1년에 2차례 씩 사역훈련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게 37개 나라로 확산되기를 기도한다.
- (4) 한국에서 40일 훈련이 구체화되도록 기도한다.
- (5) 내년 9월 8-9일에 파나마 집회가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선교는 무엇인가? 선교가 무엇인가 싶어서 책도 보고 많은 것도 찾아보았지만, 가 보니까 간단했다. 사도행전 1장, 2장의 마가다락방 운동을 문화권 다른 현장에 옮겨놓는 것이었다. 문화권이 다른 현장에 이 응답을 옮겨놓는 것이 선교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경제, 언어, 통역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충만을 전달하고 있다.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 만나는 모든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결국 한국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20가지 전도 전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기도제목이다. 50주년, 귀한 행사에 특별히 와서 포럼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큰 세계복음화의 배를 만들었으니, 마음껏 뛰어서 세계복음화시기를 바란다. 목사님 말씀 따라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남미 선교를 가지고 선교 포럼을 했습니다. 전 세계 선교를 이미 하고 있는 참사랑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50주년의 응답을 두고 함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큰 배를 띄우는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선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산업을 축복하시는지 체험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